

미치도록 좋은, 미치도록 사랑하는 나의 책



《책은 나름의 운명을 지닌다》표정훈 저/공민/352쪽/값 10,000원



표정훈 씨(35)는 아날로그 책세상과 디지털 웹세상을 넘나드는 전방위 ‘책벌레’다. 그는 설새없이 많은 책과 연애를 한다. 그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5,000여 권. 한 달에 50만 원을 책값으로 지출하고, 눈을 뜨자마자 웹 서핑을 통해 책의 바다를 향해한다. 《책은 나름의 운명을 지닌다》는 이 ‘별난 독서광’의 아주 특별한 ‘책에 관한 책’이다.

“중·고교 때는 책 때문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개가식 서가를 봤는데 제 개인 서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대학 때는 정말 즐거웠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고지식하다고 여기는 시대는 지났다. 표정훈 씨는 책에 대한 유쾌한 관심과 신세대 못지 않은 열정으로 웹상의 고급정보를 구축해 놓는 새 세대 ‘독서광’이다. 스스로를 리스트 마니아라고 칭하는 그는 이번 책에서 웹

서핑을 통해 도서정보를 구축했던 과정, 책과 관련된 토픽들을 노련한 이야기꾼처럼 흘러준다. 이런 책 그물망은 웹 속에서도 실현된다.

“공리닷컴 사이트를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출판관련 검색엔진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서 업데이트도 하고 양질의 정보들을 담아내고 싶는데 원고, 방송 등 일이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이와 넓이를 갖춘 출판평론가 로 불리지만 정작 사람들의 관심과 출판평론가라는 직함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그저 책세상에 빠져 있는 ‘별난 일반사람’으로 보이셨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이번에 낸 책은 지난 2년여 동안을 일단락 짓는 책과 다름 없습니다. 연예인 같은 방송활동에서 벗어나 마음껏 책을 보고 싶기도 하고, 백수시절처럼 웹 서핑도 실컷 하고 웹세상에 양질의 책세상을 건설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는 이 책이 그 동안의 칼럼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많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 책은 책을 말하는 ‘메타’ 책이 많지 않은 우리 출판계에 신선한 자극을 부른다. ‘탐서가’가 어떤 과정으로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책과 인연의 끊을 놓지 않았는지, 책을 고르는 기본적인 방법, 미래 번역가들에 대한 충고 등 그 대단한 ‘책과의 연애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져 있어 미래의 ‘독서쟁이’에게 좋은 지침서가 된다.

책 안에는 우리 출판계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담겨 있다. ‘개정판’이라는 이

름으로 나오지만 개정 안 한 채로 서점에 나와 대학생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대학교 재들, 증정본의 문제점 등이 그의 도마에 오르며 표정훈 씨의 애정 담긴 채찍질을 당하기도 한다.

“사실 정말 써보고 싶은 책은 청소년을 위한 중국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필중인 책도 있습니다. 책과 관련된 모든 연관 고리를 찾아보는《책의 그물》이라는 책이죠.”

그는 앞으로 출판평론가라는 이름보다는 저술가, 번역가로 소개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책 정보를 전하는 일도 멈추고 싶지 않다.

표정훈 씨는 책읽기에 있어서는 ‘양다리 걸치기’, ‘고무신 거꾸로 신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새로운 책과 연애하고, 기존에 있던 책을 의심하라는 그만의 책 연애 법칙이다.

“세상에 나쁜 책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상한 책도 한 줄 건질 수 있는 좋은 문장이 있죠. 그래서 책입니다.”

새로운 책을 보면 늘 호기심이 생긴다는 그는 또 다른 책과 인연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세상 모든 책에 음흉(?)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취재 김정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